

보도 일시	2022. 12. 21.(수) 09:00		
담당 부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인 (044-200-1150)
		담당자	사무관 김성남 (044-200-1181)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 실현 위해 개방형 전기차 충전 시설 본격 운영 - 세종청사에 24시간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15기 조성 8개 청사 안에 186기 추가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세종청사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12월 21일(수) 입주 기관 운영지원과장 등 기관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전기차 충전단지 개소식을 개최한다.
 - 이번 전기차 충전단지 조성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기반 시설과 부지 등 인허가를 지원하고 민간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민관합동 사업으로 추진됐다.
-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는 세종청사 10동 인근 옥외주차장에 총 15기 (2대 동시 충전형 급속 4기, 완속 11기)가 설치된다.
 - 충전단지는 세종시 간선급행버스(BRT) 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좋고 24시간 전면 개방되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전기차 충전기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365일 24시간 불편 민원 전화상담실(콜센터) 운영과 청사별 유지관리 거점을 개설하여 고장 및 민원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또한, 2023년 4월 구축 예정인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전기차 충전기 이용 시간, 횟수, 충전량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진단하여 전략적 추가 배치·이설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8개 정부청사 내부에 전기차 충전기 186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의무기준*(전체 주차면 2%)을 완료했다.

○ 이번에 청사 내부에 추가로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세종청사 59기, 서울청사 5기, 과천청사 42기, 대전청사 52기, 합동청사 28기 등이다.

○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3개 정부청사 내부와 개방형 전기차 충전단지 등을 조성하여 총 676기(주차면의 5%)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 운영할 계획이다.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22.1.28.)에 따른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주차면의 0.5%에서 2%상향조정

※ (연도별 설치 계획) '21년까지 95기, '22년 201기, '23년 190기, '24년 190기

□ 조소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청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라며, “매년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에 맞춰 서비스 디자인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더 나은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